

'25. 8. 29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아 테

○ 필리핀, 한국인 대상 범죄 전담대응 조직 신설

- 8.21 언론은 필리핀 조직범죄대책위원회가 우리 국민과 관련된 범죄 피해나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대응을 위해 한국대사관과 협력해 전국 8개 경찰서에 '코리안 헬프 데스크'를 공식 개설했다고 보도
 - ※ 언론은 '코리안 헬프 데스크'는 필리핀 경찰이 특정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전담 대응 조직을 운영하는 첫 사례라고 부언

○ 韓 경찰, '폭발물 자작극' 배달 기사 구속 송치

- 8.25 언론은 경찰이 수원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지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, 해당 글을 갈무리해 112에 신고한 20대 배달 기사를 공무집행방해,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보도
 - ※ 피의자의 범행으로 경찰특공대와 소방 당국이 한 시간 넘게 수색에 나섰고 건물에 있던 이용객 4백여 명이 대피하는 등 불편을 초래

유 럽

○ 네덜란드, 표현 자유 침해 우려에도 '테러 미화 금지법' 추진

- 8.20 언론은 네덜란드 정부가 '테러 미화 금지법' 제정을 추진한다며 테러단체로 지정된 단체를 지지하는 깃발을 흔들며 시위하거나 관련 메시지를 온라인상에 공유하면 최대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보도
 - ※ 이번 법안은 영국 공군 기지에 잠입해 공군기 2대를 파손해 테러방지법에 따른 금지 단체로 지정된 '팔레스타인 행동'에 사용된 법안과 유사하다 부언

○ 룩셈부르크, 테러 선동 게시물 작성한 20대 체포

- 8.22 언론은 룩셈부르크 검찰청이 공중을 위협하고 잠재적으로 테러 선동에 해당하는 틱톡 게시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체포하였다고 보도하며, 당국은 체포 과정에 충돌은 없었으며 주요 사항은 대중에게 공개하겠다고 발표
 - ※ '15년 개정된 룩셈부르크 형법은 '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폭력적 메시지를 유포하는 것'을 '테러 선동'으로 규정하고 있음

미 주

○ 캐나다, 테러 모의 혐의로 자국민 미성년자 체포

- 8.20 캐나다 왕립경찰(RCMP)은 SNS에 테러 공격 의사를 밝히고 소총 구입을 시도한 자국민 미성년자를 지난 수요일에 체포했다고 발표했으며, 해당 인물이 ISIS에 충성을 맹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부언

○ 美, 비자 및 영주권 신청자의 테러 지지 여부 등 사전검토

- 8.21 美 이민서비스국이 19일부터 비자·영주권 신청자의 反美 성향, 반유대·테러 지지 여부 등을 SNS와 과거 발언을 통해 심사에 반영하고, 위반 시 비자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개정 및 시행한다고 발표

○ 콜롬비아, 헬기 피격·폭탄 테러 연이어 발생해 13명 사망

- 8.22 언론은 콜롬비아에서 경찰 헬기가 드론 공격으로 추락해 경찰관 8명이 사망, 칼리 공군 기지 인근에서 차량 폭발로 민간인 포함 5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치는 등 헬기 피격·폭탄 테러가 잇달아 발생했다고 보도

※ 당국은 이번 연쇄 테러를 콜롬비아무장혁명군 잔당인 ‘중앙총참모부’와 범죄조직 ‘클란 델 골포’ 등의 소행으로 보고 강력 대응을 발표

○ 에콰도르 경찰, 콜롬비아로 폭약재료 배달 시도 적발

- 8.25 언론은 에콰도르 경찰이 페루 국경 인근에서 콜롬비아로 향하던 폭발물 재료 운반 화물차를 적발했으며, 차량엔 무장단체가 테러에 사용하려던 다량의 폭약재료와 폭발물 연결선, 모바일 기기 등이 실려 있었다고 보도

※ 앞서 지난 21일 콜롬비아에서는 경찰 헬기 피격에 이어 군부대 앞 폭발물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, 경찰관과 임산부를 포함한 행인 등 19명이 사망

중 동

○ 이란, 이스라엘 연계 테러리스트 6명 사살

- 8.24 언론은 이란당국이 동부 국경지대로 입국해 테러를 꾸미던 이스라엘과 연계된 무장대원 6명을 사살·2명을 체포했으며, 이들은 소총·수류탄·지살폭탄조끼 등을 보유하며 이란 내 동부 핵심 지역을 공격하려 한 정황이 있었다고 부언

역사속 테러사건

2008년 베이징 올림픽 직전 공안 대상 차량돌진 테러

- '08.8.4 중국 베이징 올림픽 개막 나흘 전 신장 위구르 자치區에서 공안 소속 국경경비부대를 겨냥한 차량돌진 테러가 발생, 16명이 사망하고 16명 부상
 - 테러범 2명은 트럭 두 대에 각기 탑승하여 국경경비부대로 난입, 훈련 중이던 부대원 10여 명을 충격한 후 하차해 흉기를 휘두르면서 수류탄을 투척
- 한편, 중국 정부는 올림픽에 대비해 '08.1~6월 신장 위구르 자치區에서 테러 기도 5개 조직 82명을 검거하고 훈련 거점 41곳을 적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했음에도 同 사건이 발생했다'며 당혹감 표출
 - * 중국 정부는 신장 위구르 자치區 무장 분리·독립 운동조직인 '東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(ETIM)'의 올림픽 겨냥 테러 첩보를 사전에 입수했음에도 차단에 실패

⇒ APEC 정상회의 등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 행사를 앞두고 각국 주요 인물·행사장에 대한 선제적 테러 및 경호 예방 활동 필요

테러 상식

< 東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(ETIM) >

- (목표) 중국 신장지역內 이슬람 국가 건설
 - * 테러단체 지정 : UN('02.9), 미국('02.9), 영국('16.7), 중국('03.12)
- (주요인물) 지도자: 「압둘 하크 투르키스타니」 ('03.11 선임)
- (결성·규모) '97.8월·아프간 약 350명, 시리아 4,000~5,000여명 활동 추정
- (연계세력) 알카에다·탈레반,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운동, 東투르키스탄 해방기구
- (주요테러) '14.3 윈난성 쿤밍市 기차역에서 위구르族 무장세력의 흉기 난동(170명 사상)
 - '14.5 신장 우루무치市 재래시장에서 차량 폭탄테러(122명 사상)
 - '16.8 키르기스스탄 비쉬케크 주재 중국 대사관에 차량 자폭테러(3명 부상)